

예다함은 믿음이다, 예다함



프리미엄 전문 장례서비스의 대명사 예다함

예다함은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면서 고품격의 정직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장례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고도 다시 내부에서 일정 기간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다함 교육지원센터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추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대고객서비스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예다함 장례지도사는 전국 직영 지부에 배치되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예다함은 합리적인 '고객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례 진행 후 미사용 품목에 대해 환불해주는 '페이백(Pay-back)시스템'과 노잣돈 및 수고비 등 금품 수수 시 고객이 기납입한 금액을 100% 환불해주는 '부당행위 보호시스템'은 경쟁사와 구별되는 주요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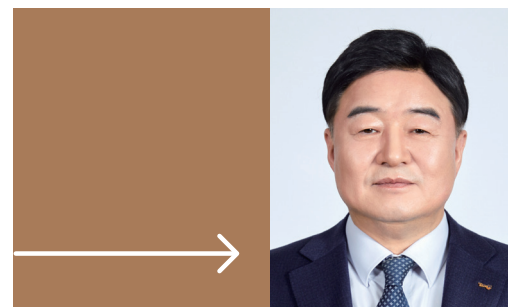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예다함은 '정직과 신뢰'의 아이콘으로 부상하여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2021년 기준 4회째 획득하였다.

상조(相助)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는 상조회사 예다함

예다함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상조업의 기본 정신 위에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예다함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온라인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의 10%와 매월 임직원 급여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사랑[愛]다함'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정성은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장애인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나눠주고 있다.

또한,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전국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조손(祖孫)가정에 장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순직소방관들의 가족들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예다함은 지속해서 밝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상조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예다함은 업계 최대 은행과 고객납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재무 건전성 또한 최상위에 빛나는 정직과 신뢰의 장례서비스 브랜드이다. 예다함은 온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업계 최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로 부당한 업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페이백(Pay-back)시스템, 부당행위보호시스템, 전국직영운영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더케이예다함상조(株) 대표이사 오승찬

예다함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장례서비스 부문 6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상조 업계를 향한 불안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정직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고집하는 예다함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례를 담당하는 상조회사로서 고품격의 예우로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